# 전남 13개 시·군 '소멸 고위험'…24% 독거노인

#### ■ 호남통계청, 인구 감소 지역 변화상

2015년 고흥 1곳서 급증…연평균 성장률 '-1.63%' 고령화율 30.7%→39.4%…청년 비율은 10.4% 그쳐

로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13개 지자체가 소멸 고위험 지역으 발표한 '인구 감소 지역 변화상' 자료에 따 만) 등 5개로 구분한다. 르면 2016년부터 위험지역으로 진입한 전 20일 국가데이터처 호남지방통계청이 남의 지난해 소멸 위험지수는 0.32다.

인구 소멸위험지수는 낮음(1.5이상), 됐다. 보통(1.0~1.5미만), 주의(0.5~1.0미 만), 위험(0.2~0.5미만), 고위험(0.2미 위험 지역 연평균 인구 성장률은 -1.63%

지난해 13개로 급증했다.

지방소멸위험지수는 주민등록인구 시군별로는 담양, 곡성, 구례, 고흥, 보 1.93%, 무안 1.34%, 광양 0.08% 등 3곳 고위험 지역 빈집 비율은 15.2%로 집계됐 기준으로 20~39세 여성인구를 65세 이 성, 장흥, 강진, 해남, 함평, 장성, 완도, 은 인구가 증가했다. 상고령인구로 나는 상대적 비율을 말한 진도, 신안 등이다. 10년 전(2015년) 전

지난 10년간(2015~2024년) 전남의 고 (10.7%)을 밑도는 10.4%에 그쳤다. 전남의 고위험 지역은 2015년 1개에서 구 성장률이 각각 -0.72%, -0.07%였던 것과 비교하면 감소 폭이 컸다. 나주

전남 소멸 고위험 지역의 고령화 비율은

또 전남지역 고령 1인 가구 비율이 23.5%로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전남 빈집 비율은 15.0%, 소멸

한편 이번 자료는 지역 인구 감소, 지방 남에서 소멸 고위험 지역은 고흥만 해당 2015년 30.7%에서 지난해 39.4%로 상승 소멸 가속화 현상을 통계적으로 분석, 지 한 반면, 청년 비율은 전국 평균 역 발전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 공하기 위해 작성됐다.

통계분석을 위한 기초 통계자료는 였다. 같은 기간 전남과 전국의 연평균 인 16.1%를 기록한 가운데 고위험 지역은 KOSIS, 국가데이터처 가구·기업 통계등 록부 등을 재구성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HMM 대표이사, 김재을 HD현대삼호 사장 등 주요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HD현대삼호, 메탄올 이중연료추진 컨테이너선 명명식

#### 차세대 친환경 연료 활용 'HMM CLOVER호'

세대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 '클로버호'가 해운·조선 분야 주요 관계자 80여명이 참 선산업의 기술적 우수성을 보여주는 대표 이름을 올리며, 전남 조선산업이 친환경• 스마트 선박으로의 전환 흐름을 이끄는 핵 심 거점임을 다시 확인했다.

버(CLOVER)호' 명명식이 열렸다고 밝 혔다.

명명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전재수 이다. 해양수산부 장관, 최원혁 HMM 대표이사, 김재을 HD현대삼호 사장, 김규봉 HMM 오 경 추진 기술과 고도화된 설계·품질관리

전남 영암 HD현대삼호에서 HMM의 차 션서비스 대표이사, 이영석 KR 부사장 등 석해 선박의 탄생을 함께 축하했다.

대삼호가 HMM으로부터 수주한 9000 이라며 "전남도는 지역 조선업계와 함께 전남도는 20일 HD현대삼호에서 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 HMM사의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 '클로 개) 급 메탄올 추진선 7척 중 네 번째 선 박이다. 메탄올을 연료로 사용해 유해가 스 배출을 최소화한 차세대 친환경 선박

역량이 적용된 이번 선박은 향후 전 세계 바다를 누비며 HMM의 글로벌 운송 경쟁 를 갖추고 있으며, 국내 연안여객선의 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적 성과로, 전남이 글로벌 조선산업의 중심 HMM 클로버호는 2023년 2월 HD현 지로 확고히 자리하고 있음을 입증한 셈" 조선산업의 초격차 경쟁력을 만들어, 전남 조선이 세계 조선의 기준이 되도록 하겠 다"고 말했다.

조선으로의 전화 흐름 속에서 지역 조선산 있다. HD현대삼호의 메탄올 연료 기반의 친환 업의 기술력과 생산 역량을 다시 한번 확인 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전남은 국내 유일의 조선산업 클러스터 55%, 어선의 41%가 운항하는 지역으로, 김영록 지시는 "클로버호는 우리나라 조 친환경 연안선박 실증에 최적의 조건을 갖

이를 기반으로 전남도는 △친환경 연안 선박 클러스터 인프라 구축 △탄소중립 선박 연료 공급기술 개발 △친환경선박 암모니아 연료공급시스템 실증 기반 구축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소형어선 규제자유특구 등 미래 친환경 조선산업 전남도는 이번 명명식이 친환경·스마트 육성을 위한 기반을 지속해서 확장하고

>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2@gwangnam.co.kr

### 현대차, 中 사회책임 평가 10년 연속 1위

#### 전체 기업으론 5년 연속 3위…현지 사회공헌 활동 인정

현대차는 중국사회과학원이 발표한 화를 지속하고 있다. '2025 중국 기업사회책임 발전지수 평 1위에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과학원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리 현황과 정보 공개 수준을 종합적

속 자동차 기업 1위이자 외자기업 2위 에 올랐다. 중국 전체 기업 순위에서 있다. 는 5년 연속으로 3위를 기록했다.

ESG (환경·사회·기업지배구조) 경영 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중국 사회에 점을 높이 인정받았다.

맞는 중국 특화 ESG 평가 표준을 제 을 개선해왔다. 올해부터는 중국 내 를 진행하는 등 ESG 경영 내재화 강

현대차는 2008년부터 내몽고 지역 가'에서 10년 연속 자동차 기업 부문 사막화 방지 사업인 '현대그린존' 프 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2021년부터 기업사회책임발전지수는 중국사회 는 이를 더욱 강화해 중국 정부가 추 진하는 향촌진흥(농업 발전, 농촌 생 활 환경 및 농민 삶의 질 개선) 및 쌍 으로 판단해 매년 순위를 발표하는 지 탄(2030년 탄소 배출 정점, 2060년 탄소 중립 달성) 목표에 맞춰 초원 복 현대차는 지난 2016년부터 10년 연 원, 숲 조성 및 친환경 농촌개발사업 을 현지 정부와 함께 적극 추진하고

올해는 퇴화가 심한 약 233만m² 면 이번 평가에서 현대차는 중국 내 적의 초원을 대상으로 복원사업을 진

또 현대차는 2020년부터 청년창업 특화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친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현재까지 88개 스타트업의 발굴・육성을 지원하고 있 현대차는 지난 2021년 현지 여건에 다. 올해는 현지 스타트업의 사업 프 로젝트를 현대차의 CSR 사업과 연계 정한 뒤 현지 여건에 맞춰 세부 요건 해 업그레이드하고, 스타트업 기술・ 제품에 대한 실증 사업 및 판로 확장 주요 생산 법인을 대상으로 현장실사 지원 등 다양한 시너지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정현아 기자 aura@



지난 6월 중국 어린이날을 맞아 북경에 위치한 중국아동센터에서 현대차 임직원들과 뇌성 마비 어린이들이 예술전을 관람한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모습.

